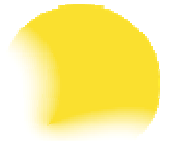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선교지에서도 때때로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까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나?' 또는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나?'라는 너무도 근본적인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해변교회에서 새롭게 복음을 알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근본적인 질문에 너무나 쉽게 답을 찾게 하시고, 도리어 낙망을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케 하심을 경험 합니다.

해변교회의 2부예배는 모두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New Spirit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주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로 기존 교인들이 출석하는 아침 1부 예배 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2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다가 특정한 날에만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잊지 않고 돌아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New Spirit 프로그램이 아니었더라면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터인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New Spirit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 중에서 '메'라는 13살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같은 또래 보다는 조금 늦지만 New Spirit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메'는 해변마을이 아닌 근처 윗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같이 출석하는 엄마는 물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입니다. 예배드릴 때도 혼자 따로 앉고, 간식을 같이 나눌 때도 외톨이로 전혀 즐거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침내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토요 프로그램에도 빠지기 시작하더니, 몇 주째 '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메' 엄마는 주일 예배는 물론 아이들만 참석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메' 엄마는 저희에게 좀 특별한 분입니다. 한번도 교회에 와 본적이 없다고 하는 '메' 엄마는 New Spirit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에 출석을 시작한 이후로 누구보다도 교회에 일찍 나오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가장 늦게 교회를 떠납니다. 또한 이곳의 많은 이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저희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데, '메' 엄마는 언제나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며 끊임없이 저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해서 '배가 비어 있다' (배가 고프다는 '메' 엄마의 독특한 표현)는 것과 오늘은 교회에서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물음이지만, 저희를 기다린 '메' 엄마가 조금도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 엄마는 다른 이에게로부터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외모와 옷 차림새가 다른 이들과 조금 구분이 됩니다. 피부가 남보다 좀 더 검은 것이 그렇고, 성한 이빨이 별로 없어서 볼품이 없어 보이고, 머리 모양도 여느 부인들과는 조금 달리 짧게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에는 모두들 비교적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지만, '메' 엄마의 옷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사나 간식을 나눌 때면 어린 아이들보다 먼저 배식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남은 음식은 꼭 별도로 챙겨가야 합니다. 이제 사춘기로 들어서는 '메'는 이런 엄마가 너무도 부끄러워서 엄마 뿐만 아니라 교회내의 친구들까지도 멀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메' 엄마가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하는지를 잘 압니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용에 따라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금세 심각해 지기도 하고, 혼자말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반응도 '메'가 싫어하는 이유일런지 모르겠습니다.



2 부 예배

해변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 예배에 성찬식을 베푸는데,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모두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잘 들은 다음 초신자들을 포함하여 예배에 참여한 거의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메' 엄마는 성찬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 들이며 아직 참여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허술하게 보이는 '메' 엄마는 비록 더디지만 신중하게 복음을 받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 갈때면 예배가 끝난 이후 가장 늦게 돌아 가는 '메' 엄마와 함께 교회를 나서게 됩니다. '메'의 모녀가 거주하는 곳은 저희가 대로로 나가는 방향과 다르지만, 조금 돌아 가더라도 '메' 엄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가는 것이 저희도 즐겁기 때문에 늘 동행을 합니다. 때때로 집에 돌아 갈때 이들 모녀가 입을 옷과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전해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메'가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는 전과 같이 혼자 따로 앉아서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일 늦게 교회를 나와서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 가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와 '메' 엄마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데, '메'는 여전히 밝지가 않습니다. 사춘기로 접어든 소녀가 엄마를 불편해 하는 모습이 너무도 역력합니다. '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넷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미국의 맥도널이나 버거킹과 같은 '졸리비'라는 햄버거 페스트 푸드 판매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해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가 볼수 없는 곳이기 에, '메' 역시 13살이 되도록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메'의 어두운 얼굴이 기쁨과 기대와 웃음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졸리비'에 들어서니 외국인인 저희와 허름한 '메' 모녀로 인하여 그 곳을 지키는 경비는 물론 식당 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메'가 좋아 할만한 음식을 넉넉하게 주문을 하고 모처럼 모두 웃고, 이야기 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메'에게 엄마를 엄지 손가락을 올려 보이며 '너의 엄마가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하게 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우리는 너의 엄마를 참 좋아 한다.'라고 말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엄마와 저희들을 한참이나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날 오후는 저희 모두에게 참으로 기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일 이후부터 '메' 모녀는 한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혹이라도 저희들과 눈이 마주치면 마치 큰 비밀이라도 서로 알고 있는 듯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습게도 어린 딸 '메'는 아무 말이 없는데, '메' 엄마는 저에게 '졸리비'에 또 언제 가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메' 모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있는 여유 있는 얼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메' 모녀

'메' 모녀의 변화 속에서 저들을 오랜 동안 기다리셨다가 돌아오는 저들을 위해 마침내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부드러워진 웃음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곳까지 보내신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눅 15: 22-24)

 오늘도 '땅기기'가 무척 땅기는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 놓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곳에 왔지만, 사소한 '먹거리'로 인하여 때때로 힘이 빠져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여전 저희가 파송될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이 곳보다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어려운 곳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 왔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곳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이곳에 파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먹거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 아내가 인정할 정도로 무엇이든지 맛있게 잘 먹는 참으로 착한(?) 남자임을 자부해 왔는데 말입니다. 오래 전에 중국 장기 출장을 가 있을 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한식을 한 끼도 먹지 않고 현지 식사로 전혀 문제 없이 지내는 저의 모습을 보고, 동행한 다른 출장자가 저의 특별한 '잡식성'을 인정할 정도로 현지 적응력이 강한 저 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내가 정성껏 해 주는 한식을 먹으면서도 제한된 먹거리로 인하여 지난날의 다양한 먹거리를 회상하며 입 맛을 다실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동안 이 곳에서 사역을 해 왔던 다른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그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 네브라스카 주에서 오신 선교사는 그 곳에서 먹던 스테이크를 생각하면, 이곳의 쇠고기는 가죽 벨트를 씌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다호 주에서 오신 선교사는 감자다운 감자가 너무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작년에 약 한달간 이곳을 단기 방문한 선교사와는 다른 것보다도 이곳의 '먹거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지를 방문해 보았지만 서민들이 주로 먹는 감자와 양파가 이렇게 작고, 비싼 곳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다양한 열대 과일은 있지만, 정작 먹을 만한 것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정도이고, 배어 물면 시원한 과즙이 흐르는 과일이 없다고 아쉬워 합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등푸른 생선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희한하게 생긴 분홍색, 녹색 생선만이 있다고 재미있어 합니다. 실망한 이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려고 저희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 버린 듯한 '동태'를 어렵게 구하여 매운탕을 끓여 드린 적이 있는데, 덕분에 2년여 만에 저희도 그 황홀한 맛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곳의 제한된 먹거리로 인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중에 미처 그 맛을 잘 몰랐던 중에서 새롭게 맛을 붙인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풋고추'의 재 발견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제법 큰 것까지 다양한 풋고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매운 강도가 더 세고, 자극적입니다. 어떤이는 매운 맛은 맛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극'에 속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매일 저녁 식사에 이 자극적인 풋고추를 먹어야만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의 위를 걱정할 정도로 풋고추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옥수수'의 재 발견입니다. 특별한 간식 거리가 없는 이곳에서 옥수수를 찌서 먹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값도 싸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두, 세자루는 금방 해결해 버립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토요일은 옥수수 먹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담백한 조개 시금치 국이나, 된장으로 간을 한 시금치 국을 좋아 합니다. 하지만 이곳 시장에서는 시금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먹거리'로 인하여 아쉬워 하면, 제 아내는 마치 자신의 부족함 인양 더 힘들어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말 오랜만에 정겨운 시금치 국을 맛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내가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강콩'이라는 야채를 다양한 시도 끝에 개발한 새로운 국이었습니다. 시금치 무침으로는 변신이 안되지만, 시금치 국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저희 집만의 '강콩국'입니다.



과일 가게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곳에서 제가 아쉬워 하는 먹거리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생선류'입니다. 물론 이 곳에도 다양한 생선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지만, 제가 즐겨 먹어 왔던 찌게나 구이나 회로 요리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생선으로 다양하게 찌게나 구이를 요리 해 보지만, 아쉽게도 제가 먹어 왔던 그 생선 맛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 오는데, 많이 익숙한 생선 구이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워(?) 하고 먹고 싶어했던 진짜 '삼치'구이입니다. - 삼치 - 이곳에서는 삼치를 그 이름만으로도 맛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땅기기'라 부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익숙하게 보아 왔던 모습으로 삼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큰 삼치 한 마리를 토막을 내어 팔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삼치일 것 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얼마나 맛있게 '땅기기' 구이를 먹었는지 그동안의 '먹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땅기기

오늘도 '땅기기'가 무척 땅기는 날입니다. '여보, 땅기십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5)

기도 요청

1. 마띠 고등학교에 New Spirit 장학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2. 교실 벽 공사가 시급합니다. 6개의 교실 벽, 창, 문등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 학교 내에 성경을 같이 공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 (Chapel)을 건축하도록
4. 마띠 교도소의 150여명 수감자들의 청결을 위한 생필품 (비누, 치약, 세제등)을 계속 공급 할 수 있도록
5. 마띠 지역 사역을 위한 이동 중의 안전과 차량 구입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